

풀은 비르지니가, 옛일을 추억하며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까지도 잊지 않은 그녀가 자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연실색했네. 하여간 풀은 여자의 편지란 아무리 길더라도, 애지중지 아껴온 생각은 맨 나중에 가서야 쓴다는 것을 몰랐던 게지.

비르지니는 추신을 쓰면서, 풀에게만 따로 제비꽃과 체꽃 두 종의 씨앗을 부탁해두었어. 그러면서 이 식물의 특성과 과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곁들였네. 비르지니는 풀에게 “제비꽃은 짙은 보랏빛의 작은 꽃을 피우는데, 덩불 밑에 숨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그 향기가 매혹적이라서 꽃이 있는 곳을 금방 찾게 돼”라고 전했다. 씨앗은 샘가에 있는 자기 야자나무 발치에 심어달라고 했지. 그리고 덧불이길, “체꽃은 옅은 파란색의 작은 꽃을 피우거나, 검은 바탕에 하얀 술이 충충히 수놓인 꽃을 피우기도 해. 마치 상복을 입은 것 같달까.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과부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꽃은 땅이 험곳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좋아해”라고 했어. 비르지니는 마지막 밤에 자기와 이야기를 나눴던 바위에 그 씨앗을 심고, 그 바위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담아 ‘이별바위’라는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네.

비르지니는 이 두 씨앗을 작은 주머니 하나에 꼼꼼히 챙겨 넣었는데, 천의 감은 아주 수수했으나, 풀이 거기서